



서울대학교 뉴욕지역

골든클럽 회보

GOLDEN CLUB NEWSLETTER

MARCH 2025

WE LEAD A HEALTHY AND HAPPY LIFE

VOL. 155



봄을 기다리는 마음

춥고 긴 겨울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느덧 봄의 문턱에 서 있네요. 겨울 동안 우리는 잠시 숨을 고르며, 새로운 계절을 맞이할 준비를 해왔습니다. 3월 하순, 우리 동창회의 신년 교례회가 시작되면서 다시 한번 활기찬 시간들이 이어질 것입니다. 골프장에서의 스윙 소리, 하이킹길에서의 발걸음, 그리고 단체 여행에서의 웃음소리까지. 그 모든 것이 기다려집니다.

겨울은 소강상태였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는 작은 기쁨을 찾았습니다. 따뜻한 실내에서의 모임, 골프 스윙 연습, 혹은 내년 여행 계획을 세우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는 그 모든 준비가 봄과 함께 꽃피울 때가 되었습니다. 봄은 새로운 시작을 상징합니다. 자연이 깨어나고, 우리의 활동도 다시 활기를 띠게 될 것입니다.

골프장에서는 친구들과의 경쟁도, 대화도, 그리고 자연과의 교감도 기대됩니다. 하이킹길에서는 봄바람을 맞으며 걷는 즐거움, 그

리고 함께하는 이들과의 소중한 시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체 여행에서는 새로운 곳을 탐험하며, 우리의 유대감을 더욱 돈독히 할 것입니다.

봄은 단순히 계절의 변화를 넘어, 우리에게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는 시간입니다. 겨울 동안의 조용한 반주가 봄의 활기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이번 봄에도 우리는 함께하며, 새로운 추억을 만들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더욱 풍요로운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곧 다가올 봄을 기다리며, 우리 모두의 마음이 설레기를 바랍니다. 함께할 날들을 생각하면, 벌써부터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이제 곧, 우리의 발걸음이 다시 활기차게 땅을 디딜 것입니다. 봄의 문턱에서, 우리 모두가 새로운 시작을 기대해봅니다.

GOLDEN CLUB NEWSLETTER

발행: 서울대 뉴욕지역 골든클럽 • 회장: 홍종만 • 부회장: 김영천, 김정필 (사무총장)
편집위원: 김영천, 김병순, 여주영, 이영범, 정해민 (상임고문)
44 Macintyre Lane, Allendale, NJ 07401 • hong1945@gmail.com • 646-342-2667

2025 Golden Club 신년교례회



Hilton Hotel 3월 22일 오전11시

2025년을 시작하는 신년교례회가 3월 22일(토), 장소를 변경하여 Hilton Hotel에서 열립니다. 작년까지 사용하던 Doubletree Hotel 일대의 심각한 교통 체증과 호텔 진출입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교통이 편리한 I-80와 Rt 17 교차지점에 있는 Hilton Hotel로 연회장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야간 운전이 불편하여 참석이 어려운 선배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행사를 주간으로 변경하고 오후 4시에 종료하는 것으로 일정을 조정하였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특별히 회원 여러분의 참여와 의견을 모아서 함께하는 즐거운 잔치가 되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날짜: 2024년 3월 22일 (토요일) 오전 11시 -4시

장소: Hilton Hotel,
650 Terrace Ave, Hasbrouck Heights, NJ 07604

회비: 1인당 \$120

특별공연:

피아노 3중주
바리톤 흥민기

기념선물:

자세교정기
골든클럽 머그



3월13일 봄나들이 하이킹



지루했던 긴 겨울도 지나고 하이킹 하기에 좋은 계절이 다가 오고 있습니다. 금년 첫번째 하이킹을 다음과 같이 계획하고 있으니, 많은 회원들 참가하여 즐거운 시간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집결장소가 불편한 분은 Trailhead로 직접 오셔도 되며, 참가하실 회원은 연락주십시오.

일시: 3월 13일(목) 9시

집결장소: PIP exit 4-5 중간 Commuter Parking Lot
(GPS 좌표, 41.0282,-73.9388)

*Trailhead: 9시 30분, (GPS 좌표, 41.2926,-74.0256)

Anthony Wayne Recreation Area South Parking Lot

준비물: 등산화, 하이킹 폴, 음료수, 간식

(뒤풀이) Pizza Mia Pasta, 14 Thiells Mt Ivy Rd, Pomona
(41.1893, -74.0372)

문의/ 참가: 홍종만, 646-342-2667

4월24일 골프대회

2025년 첫골프대회를 뉴저지의 명문 골프장 Sunset Valley에서 아래와 같이 열게 되었으니 모두 참석하셔서 전지훈련과 동계훈련으로 다지신 기량을 모두 발휘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일시: 4월 24일(목) 11시

골프장: Sunset Valley Golf Course
47 W Sunset Rd, Pompton Plains, NJ 07444

회비: \$120

저녁장소: Alexis Steakhouse
955 Valley Rd, Clifton, NJ 07013

문의/ 참가: 김병순 (703-407-4928)



2월23일 약대동문들이 함께 신년교례회로 모여



2월 14일 김봉진택을 방문 윤선구,곽선섭 이진구 이대영회원 등이 토크연주, 직접 개조한 피리연주, 하모니카 연주 등으로 즐거운시간 보냄



2월 13일 여주영 회원과 이준행 회장을 찾아 뷔프 환담을 나누었는데, 거동이 불편하시지만 3월 22일 신년교례회에는 꼭 참석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며 골든클럽에 사랑의 후원금 \$10,000을 주셨습니다.

우리 피부까지 와닿고 있는 AI (인공지능)

이번 호에는 ChatGpt를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뉴스레터를 꾸며보았습니다. 1면의 사진과 글(봄을 기다리는 마음)도 AI가 만들고 작성하였으며, 6면의 AI시대의 도래와 7면 손주와 세대차이 없이 소통하는 법도 AI에 의뢰하여 원고를 준비하였습니다.

AI는 어떤 점에서 사람보다 더 자세하고 꼼꼼하게 각각의 관점을 포함시키는 것 같습니다. 물론 사람의 검토와 확인을 필요로 합니다. AI는 컴퓨터 개발자나 하이테크 산업에만 영향을 끼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일상생활 영역까지 깊이 들어오고 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희도 궁금한 사항을 구글에 검색하는 것을 ChatGPT등에 문의하는 습관을 들여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용하는 것은 chatgpt등에 접속해서 "미국에 사는 한국 조부모가 손주들과 재미있게 노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등으로 말하듯이 질문을 하면 자세한 답변을 금방 알려줍니다

최근에는 Alibaba에서 Qwen을 출시하고 또 Elon Musk가 Grok 라는 AI를 출시했는데 한글로 질문해보면서 사용해보니 답변이 매우 빠르고 내용도 충실한 것으로 보입니다. 업체간 경쟁이 심해지니 사용자인 저희들에게는 저렴하고 좋은 제품을 사용하게 되어 다행입니다. 한국에서도 저희가 사용하기 좋은 AI가 조만간 출시되기를 기대합니다



강혜미 박사(김정필 부회장 부인)가 지휘하는 2025 Underwood Orchestra Concert가 3월16일 저녁7시에 뉴저지 초대교회에서 열립니다. 50여명의 전문연주자들이 브라함스의 교향곡 1번/Capriccio Espanole / 아리랑 환타지 등을 연주하고 정상급 성악가 김지우와 차승우가 우리에게 친숙한 명곡들을 들려드릴 것입니다

이번 연주회에도 언더우드 선교사의 4세손들과 언더우드 선교사 모교인 NBTS의 총장 McCreary 박사등이 함께 하실것입니다. 골든클럽 회원여러분들을 모두 초대하오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나의 젊은 날의 추억-곽선섭(공대61)

-큰 고비마다 모교의 덕을 많이 보았다-

해방전 1943년 내가 태어난 당시 아버지는 독립운동한다고 북간도를 오가고 있었고 대구 인근 시골집은 일본 순경들의 감시와 핍박으로 고난이 극심했던 때였다. 그 후 6.25동란통에 집안이 갈기갈기 흩어지고 하루하루가 어려운 가난한 집, 편모슬하에서 유년시절을 보냈다 영양부족이었던지 약골로 늘 피곤하고 얼굴도 별로 언변도 없어 그 당시 어린 나이인데도 내 장래에 대한 막연한 걱정을 했던 기억이 난다.

그러니 할것은 공부 밖에 없었고 다행히 성적이 좋아 그 당시 수재들만 간다는 특차 모집의 경북대 사대부중고, 그리고 서울공대에 합격했다. 합격할때마다 그 기쁨은 뒷전이고 입학금이 막막하여 샅바느질로 고생하시는 엄마의 걱정이 앞서서 알리기가 안스러웠다.

내가 자신있는것은 공부였는데 그중에 가장 쉬운 과목이 수학이라 중학교 시절 일찍이 장래의 꿈은 중고 수학선생이 되는 것이였다. 이 꿈이 고등학교 들어서 완전히 새로운 길로 바뀌었다. 그 당시 한국 산업 발전을 주도한 선두 기업인 제일모직과 한국나이론 공장이 대구시내에 설립, 대구가 세계적인 섬유도시로 각광을 받을 당시, 한국나이론의 거대한 공장이 내가 살던 조그만 전세집 바로 맞은편에 있었고, 그 종업원들의 아침 출근행렬과 내 고등학교 등교길이 겹쳐, 그들의 정장으로 꾸며 출근하는 모습이 내 눈에는 모두들 선남선녀, 말탄기사와 공주같이 보이고 부러워 자연스럽게 내 정래목표가 수학선생에서 제일모직이나 한국나이론에 들어가는것으로 바뀌었고, 공대 섬유과를 졸업하여 그 소망을 이루었다.

지금도 그때를 연상하게하는 한 사건은 1960년 고2때, 419학생운동의 시발점이된 부정선거로 발발한 228 학생데모가 마산을 기점으로 일어나 대구가 호응하던 시점에 주위에 휩쓸려 데모대에 참가하게 되었는데 그때 참가한 기록이 남아 있었는지 수년전 ‘한국 민주화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새운 유공자’로 등재되었다는 소식과 유공자 팻말이 부쳐와서 거실에 세워두고 있다.

대학 4년동안 줄곧 가정교사로 학비를 벌며 어렵게 보내서 화려하거나 낭만적인 학창시절을 누리지는 못했으나 서울의 여러 가정을 전전하며 배운점도 많았고 그때는 고달팠으나 지금 돌이켜 보면 즐거운 추억거리도 많다. 한 예로 그당시 청와대 근무하고 있었던 사촌형님의 추천으로 어느 유명한 재벌,정치인집에 숙식하며 그 집 자녀들을 가르친 적이 있었는데, 잘 했으면 그집 사위로, 아니면 그 집안 기업에 들어가 쉽게 사회에 진출할 수도 있었는데 내 능력과 그릇이 부족하고 깨어있지를 못해 내 한테는 그림의 떡이였다.

재학 중 군대도 갔다와서 복학생으로 이력저력 졸업은 가까워 오고 직장도 구해야 하는데,말이 섬유전공이지 별로 아는 지식도 없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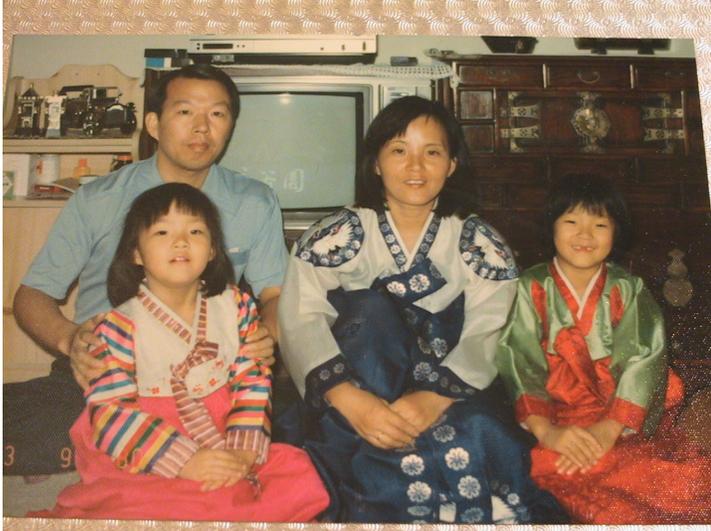


1971년결혼식

학교 성적도 나빠, 오히려 가정교사라는 직종이 내한테 더 맞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앞길이 막막할 때가 있었는데, 그것도 잠시, 삼성 이병철회장께서 내가 서울공대섬유과 졸업예정자란 간판 하나로 졸업 수개월전에 면접만 치루고 제일모직에 채용의 특혜를 배풀어 주어 대구공장의 간부로 직장생활이 시작되었다.

그 후 바로 결혼이 주 과제가 되었는데 가진것이 별로 없는 빈털털이였으나 서울대 출신, 제일모직에 다닌다는 간판덕에 여러 경로를 통해 소개팅이 들어오고, 우선 공장내 2천여 여직원중에는 Miss Korea를 배출할 정도의 미모에 마음씨 고운 아가씨들도 많았는데 인연은 따로 있었는지 담당과장이 그의 친구의 여동생을 소개해주어 내 분수에 넘치는 지금의 아내를 만나 반세기가 넘는 일생의 동반자가 되었다. 젊었을때는 내 수명을 60세 정도 까지만이라도 건강하게 살기를 바랄때가 있었는데 지금 80대를 훌쩍 넘긴데는 아내의 보살핌의 덕분으로 여기며 내 생명의 은인 으로 칭송할때가 있는데 정작 아내는 농담으로 넘기는 것 같고, 언행이 다르다는 핀잔만 받아 더 반성과 노력을 해야 할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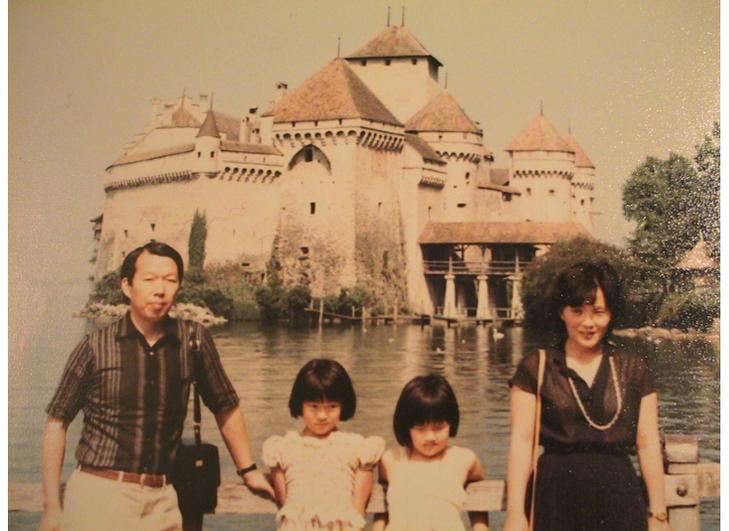
지금 80대 를 훌쩍 넘긴데는
아내의 보살핌의 덕분으로 여기며
아내는 내 생명의 은인



1980년 일본에서 새해를 맞아

그 당시 삼성그룹의 주 기업이었던 제일모직 대구공장 간부로 직장 생활을 시작하고 결혼도 해서 순탄한 일상을 보내기 얼마 가지않아 외형과는 달리 내 자신에 또 다른 과제, 갈등이 생겼다. 말타면 편 자잡히고 싶다는 말처럼 또 다른 욕심이 생긴것이다. 바쁘게 돌아 가는 일상, 짝 짜여진 조직, 많은 여러 부류의 사람에 쌓여 때로는 밤 늦게까지 회의도 하고, 술도 마시고, 브리핑도 하고 앞에 나서서 연설도 해야하는 일들이 내가 오래 감당하기에는 능력도 부족하고 소질도 없다는 생각에 좀 더 편하게 자유롭게 사는 길을 찾기 시작했다. 주위에 잘 하는 동료들과는 달리 내 자신은 힘들었고, 택시 운전사가 더 자유롭고 좋게 보일 때가 있었고, 계속하면 목표 60도 힘들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어디 외국에 나가고 싶었고 미국이민도 알아보는 중, 이런 내심을 회사 상사들이 알아나 주듯 여러가지 배려를 해 주어 그 후 제조회사 제일모직 직원으로 지난 10년동안 아주 특이한 일을 맡아 특이한 생활을 했다. 그 10년동안에 7년이상을 외국주재원 생활을 했고 2년가까이를 회사 외곽에서 돌았다. 일본 오사카지점장, 영국London 지점장,Australia 양모장기 연수, 외국출장등으로 세계 여러곳을 돌아볼수 있었고, 신입사원시절 상공부의 법이 바뀌어 수출품에 대한 품질검사를 종래는 반관반민기관으로부터 공장에 파견은 검사원이 하던것을 자체검사원을 두고 정부검사를 대행하는 제도로 바뀌었을때 우리나라 수출품 공장검사원1호로 임명되어 서울과 대구를 오가기도 했고, 한국최초로 전산system 을 도입한다고 EDPS 요원으로 발탁되어 서울 IBM본사에서 두세달 연수를 받기도 했고 성균관대학교 자료처리학과 석사과정에 입학하여 2년간 야간학교를 다니기도 했다.



1982년 Swiss 여행

이 모든것이 내가 바라던 바라 회사로 부터 큰 혜택을 받은 셈이고, 그 배려의 고마움을 갚지못하고 회사를 떠나 미국이민을 온것이 내내 빛으로 남아있고.그당시 나의 상사들 대부분이 섬유과 선배였는데 그 선배님들의 덕분으로 생각하고 늘 감사하는 마음이다.

주재원임기가 끝남과 동시에 회사를 바꾸어 대성산업의 2세 사주인 대학 동기동창 김영대 회장의 도움으로 대성산업 이사로서 뉴욕지점에 근무하게 되어 주재원자격으로 미국생활이 시작되었는데, 얼마 가지않아 그 친구의 신세만 지고 대성서 결별하고, 수년전 신청해둔 미국이민으로 영주권이 나와 본격적인 미국 생활이 시작된 후 40년이 흘렀다.

이 40년, 그동안 보고 듣고 경험한것을 글로 옮기면 재미있는 책이 될것 같은데 필력이 없으니 불가능하고 40년간 뉴저지 Paterson 의 down town 에서 금(gold) 에 관련된 Business로 American dream을 이루었다고 요약하고 싶다. Diamond setting 을 배우는 것으로 시작해서 재조,수리, 매매, 나아가 보석을 잡고 돈을 빌려주는 전당포 (이를 금융업이라 부르고 싶지만)까지 닥치는 대로 시도해서 그런대로 기반이 잡혔고, 이제 접을날을 앞두고 있다.

돌아보면 내 삶의 구비구비에 모교 서울대학교의 도움과 선후배의 도움을 많이 받아 깊은 감사를 드린다. [대담 및 정리 김병순]



AI 시대의 도래

ChatGPT, DeepSeek 그리고 노년층의 활용법



최근 인공지능(AI)이 급격히 발전하면서 ChatGPT, DeepSeek과 같은 AI 기반 기술이 일상 속으로 깊숙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AI는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인간의 사고 방식을 모방하여 학습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노년층에게도 AI는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으며, 스마트한 생활을 돕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AI가 무엇이며, ChatGPT와 DeepSeek 같은 AI 기술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노년층이 이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심층적으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1. AI란 무엇인가?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는 인간의 지능을 모방하여 학습하고, 추론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입니다. AI는 머신러닝과 딥러닝을 기반으로 발전하며, 데이터 분석, 음성 인식, 이미지 처리, 자동 번역, 자율주행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화형 AI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면서, 우리가 일상에서 더욱 쉽게 AI를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ChatGPT와 DeepSeek이란?

ChatGPT: OpenAI에서 개발한 대화형 AI로, 자연스러운 문장을 이해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이메일 작성, 일정 관리, 정보 검색, 언어 번역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으며, 노년층에게도 친숙한 디지털 비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DeepSeek: 중국에서 개발된 AI 모델로,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보다 정확하고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연구 및 학술 자료 검색에 강점이 있으며, ChatGPT와 유사한 기능을 갖추고 있지만 특정 분야에서 더욱 정교한 답변을 제공합니다.

3. 노년층을 위한 AI 활용법

AI는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노년층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건강 관리 및 의료 지원: AI를 활용해 건강 관련 정보를 쉽게 찾고, 맞춤형 식단 추천을 받으며, 약 복용 시간 알림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증상을 입력하면 기본적인 의학적 조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일상 업무 보조: AI 비서(ChatGPT)를 이용해 일정 관리, 이메일 작성, 금융 정보 검색 등의 업무를 간편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음성 명령을 활용하면 더욱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외국어 학습 및 번역: AI 번역 기능을 활용하면 외국어 문서를 쉽게 이해하고, 해외 여행 시 언어 장벽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노년층이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데도 큰 도움을 줍니다.

취미 생활 지원: AI를 활용해 글쓰기, 그림 그리기, 음악 감상, 요리 레시피 추천 등 다양한 취미 활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I가 문장을 보완해주거나, 새로운 레시피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손주와의 소통 강화: AI를 이용해 최신 기술을 배우고, 손주들과의 대화를 더욱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ChatGPT를 사용해 손주들의 관심사에 대한 정보를 빠르게 습득하고, 더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금융 및 투자 관리: AI를 이용하면 금융 정보 검색, 예산 관리, 투자 정보 분석 등이 가능합니다. 안전한 투자 전략을 수립하고 금융 사기를 방지하는 데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뉴스 및 정보 습득: AI 기반 뉴스 요약 서비스를 활용하면 중요한 뉴스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관심 분야의 최신 정보를 빠르게 습득할 수 있습니다.

4. 노년층을 위한 AI 사용 팁

쉬운 질문부터 시작하기: 처음에는 간단한 질문을 던지며 AI의 응답을 살펴보세요. 예를 들어, "오늘 날씨는 어때?" 같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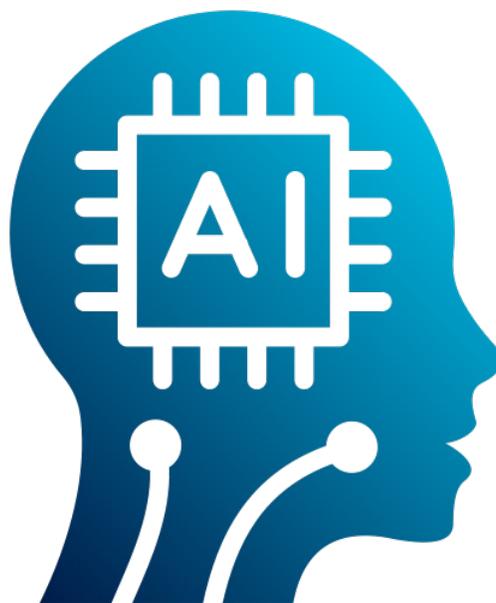
질문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안에 주의하기: AI 사용 시 개인 정보를 입력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AI가 제공하는 정보가 항상 100% 정확한 것은 아니므로, 중요한 정보는 추가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료 버전 활용하기: 대부분의 AI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되므로 부담 없이 체험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AI 플랫폼을 비교하여 자신에게 맞는 서비스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성 명령 활용: 스마트폰이나 AI 스피커를 이용하면 손쉽게 음성 명령을 통해 AI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키보드 입력이 어려운 노년층에게 특히 유용합니다.

AI는 더 이상 젊은 세대만을 위한 기술이 아닙니다. 올바르게 활용하면 노년층의 삶을 더욱 편리하고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두려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AI를 통해 더 스마트하고 편리한 생활을 누리세요!



손주와 세대 차이 없이 소통하는 법

- 디지털 시대, 조부모와 손주의 공감 소통 가이드

현대 사회에서 세대 차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조부모와 손주 간에는 이를 극복하고 더욱 친밀한 관계를 맺을 방법이 많습니다. 손주들의 관심사를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서로에게 배울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조부모가 손주들과 세대 차이를 좁히고 의미 있는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1. 손주의 관심사를 이해하려는 노력하기

손주들과 공감하며 대화하려면 그들이 좋아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 손주가 즐겨 보는 콘텐츠 함께 보기

아이들이 좋아하는 유튜브 채널, 애니메이션, 드라마 등을 함께 보면서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손주가 좋아하는 캐릭터나 이야기 속 메시지에 대해 묻고 의견을 나누면 더욱 깊이 있는 대화가 가능합니다.

□ 최신 유행어와 문화 이해하기

요즘 젊은 세대가 자주 쓰는 단어나 유행하는 노래, 패션 등을 이해하면 대화가 한층 더 자연스러워집니다. 직접 사용하지 않더라도, "요즘 친구들은 이런 말을 많이 쓰네!"라며 가볍게 반응하는 것만으로도 손주들은 조부모가 자신의 세계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느낍니다.

2. 디지털 기술 활용하기

요즘 아이들은 스마트폰과 SNS를 통해 소통하는 것이 익숙합니다. 조부모도 기본적인 디지털 기술을 익히면 손주와의 대화 창구가 더욱 넓어집니다.

□ 스마트폰과 SNS 배우기

카카오톡, 페이스타임, 인스타그램 같은 플랫폼을 활용하면 손주와 더욱 쉽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 손주에게 직접 사용법을 배우며 "너한테 배우니까 더 쉽게 이해되네!"라고 말하면 손주도 가르치는 즐거움을 느낄 것입니다.

□ 게임과 앱 활용하기

손주가 자주 하는 게임(예: 마인크래프트, 포트나이트 등)을 함께 플레이하거나, 체스·퍼즐 같은 공통 관심사의 앱을 활용하면 더욱 친밀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3. 함께 할 수 있는 취미 만들기

공통의 취미를 갖는 것은 세대 차이를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 손주와 함께하는 운동

골프, 배드민턴, 수영 등 운동을 함께하면 자연스럽게 교감할 수 있습니다. 손주가 좋아하는 스포츠를 배우거나, 손주에게 골프나 등산을 가르쳐 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손주와 요리하기

가족 전통 음식을 함께 만들어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됩니다. 김치 담그기, 전 부치기 같은 전통 요리를 가르쳐 주거나, 반대로 손주가

좋아하는 간편식을 함께 만들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 보드게임 및 퍼즐 맞추기

체스, 젠가, 카드 게임 등 보드게임을 함께 하면 자연스럽게 대화가 오가고 협력하는 과정에서 유대감이 깊어집니다.

4. 손주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기

손주들은 조부모에게서 삶의 지혜를 배우고 싶어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고민과 생각을 나누고 싶어 합니다.

□ 판단하지 않고 공감해 주기

손주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건 옳지 않아"라고 판단하기보다는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공감하며 반응하면 더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 과거 이야기와 연결하기

손주가 겪고 있는 고민이나 경험을 조부모의 젊은 시절 이야기와 연결해 들려주면 세대 간의 공감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나도 너만 할 때 비슷한 경험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렇게 해결했어"라고 이야기하면 손주도 더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게 됩니다.

5. 손주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기

손주가 어떤 모습이든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손주의 개성과 취향 존중하기

손주가 좋아하는 스타일이나 관심사를 이해하고 지지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손주가 염색을 하거나 새로운 스타일을 시도할 때 "멋지네! 요즘 유행이구나?"라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 손주도 자신을 존중받는다고 느낍니다.

□ 손주의 친구 관계 인정하기

손주가 자주 언급하는 친구나 SNS에서 교류하는 사람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면, 손주도 더욱 마음을 열게 됩니다. "그 친구랑 무슨 재미있는 일 있었어?"라고 물어보면 손주도 기분 좋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결론: 세대 차이는 줄이고, 공감은 늘리기

손주와의 세대 차이를 극복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관심'과 '공감'입니다. 손주의 세계를 존중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열린 자세를 가지면 자연스럽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을 배우고, 함께 시간을 보내며, 손주의 생각과 감정을 존중하는 대화를 시도해 보세요. 손주들은 조부모와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평생 간직할 따뜻한 추억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 이번 주 실천 목표:

✓ 손주가 좋아하는 콘텐츠를 하나 찾아보고 대화해보기

✓ 손주에게 스마트폰 기능이나 SNS에 대해 배우기

✓ 손주와 함께할 수 있는 취미 하나 정하기

이러한 작은 변화가 손주와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회원 명단 (111명 / 2025-2-25)

강교수	김승호	성기문	윤상영	이흥빈	최하주 한민우 한용오 한태진/ 한용희 허용웅 허유선 홍정표/ 홍종만/ 홍예경
강에드	김영덕	손갑수	윤재욱	임도혁	
강영선	김영만	손경택	윤종숙	임호순	
계동휘	김우영	손대홍/ 남종현	윤현남	정도현	
고애자	김의성	손옥화	이강홍	정수일	
곽상준	김정필	손근숙	이민제	조달훈/ 조승자	
곽선섭	김창수	송용길/ 송현자	이상무	정해민	
권문웅	김충정	송학린	이상원	조상선	
권정덕/ 홍선경	김치갑	송혜순	이 준	주재양	
권영대	김태일	신두식	이대연	진봉일	
권대전	김현중	신진식	이대영	천병수/ 천중화	
금영천	노승만	신응남	이영범	최구진	
김광수	노용면	오순문	이용대	최병우	
김광현	민준기	오인석	이위곤	최순채	
김동건	박기환	우규환	이종대	최준희	
김문경	박상원	유무영	이종석	최진영	
김문언	박준구	윤선구	이준행	최한용	
김병순	박희병		이행순		
김상만	배상규				

골든클럽 2025년 행사 일람 (2025-2-25)

2월		
3월	13일(목)	하이킹
	22일(토)	신년교례회
4월	24(목)	골프대회
5월	22(목)	뉴욕동창회골프대회
6월	26(목)	골프대회
7월	17(목)	골프대회
8월	14(목)	골프대회
9월	11(목)	골프대회
10월	9(목)	뉴욕동창회골프대회
	16(목)	하이킹
	30(목)	골프대회
12월	7일(토)	뉴욕지역동창회 송년회 -Double Tree Hotel
	7일-13일	Myrtle Beach Golf Trip
3월	21일(토)	2026년 신년교례회-Hilton Hotel Meadowlands

2025년 연회비 납부 명단 28명 / \$2800 /2025-2-25)

강에드	신진식
곽선섭	오용호
권문웅	윤상영
권정덕	이영범
홍선경	이위곤
김상만	임호순
김승호	정수일
김충정	정해민
김현중	주상선
민준기	최준희
박희병	한민우
성기문	한용오
손갑수	홍종만
신두식	홍예경

2025년 후원금 기부 명단 (11명 / \$4600 2025-2-25)

강에드 300	이위곤 100
권정덕 500	임호순 300
김상만 100	정해민 1000
김육수 200	최준희 300
성기문 500	홍종만 1000
신진식 300	

2025년 입회비 납부 명단

발전기금 기부명단

이준행 10,000

골든클럽 회비 납부 양식

이 회비 납부 양식(변경사항만 기재)을 Check (payable to **SNU Golden Club**)와 함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 **SNU Golden Club**, 44 Macintyre Lane, Allendale, NJ 07401

Zelle 사용안내: 골든클럽에 회비/후원금/참가비등을 Zelle 로 납부하실 분은 **keusainc@gmail.com** (SNU Golden Club)에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때 message란에 영문이름과 내용을 꼭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3월 생일을 축하합니다.

- 김영덕(공대53)
- 김치갑(의대72)
- 이대영(문리64)
- 이준행(공대48)
- 임도혁(공대59)
- 주재양(공대51)
- 최준희(의대58)
- 한태진(의대58)
- 홍선경(의대58)

성명: (한글) _____ (영문) _____ 생년월일: _____

입회비 \$200

단과대: _____ 학과: _____ 입학년도: _____ 졸업년도: _____

연회비 \$100

전화번호: _____ Email: _____

후원금 (\$) _____)

주소 (Home): _____